

■ 전국 소극장 네트워크 페스티벌 광주공연 (24일~10월 12일 씨디아트홀)

2008년은 한국 연극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1908년 첫번째 근현대극인 이인직의 '은세계'가 원각사에서 공연된 것을 한국 연극의 시초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역사에 걸맞지 않게 한국연극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연극의 현주소는 더더욱 어둡다. 배우나 스텝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하락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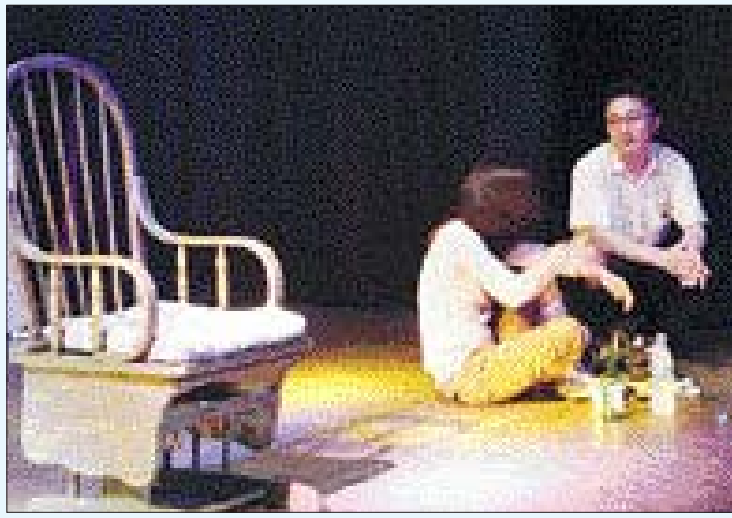


연극 향유 인구도 극히 적다. 전국의 12개 극단이 2개 순회팀으로 나눠 진행되는 '한국연극100주년 기념 전국 소극장 네트워크 페스티벌'은 지역 연극인들을 격려하고, 관객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또 부산, 안양 등 지방 극단의 작품을 통해 광주 연극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오는 24일~10월 12일(수·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8시, 일요일 오후 5시)까지 광주 씨디아트홀에서 열리는 광주 공연 참가작을 소개한다.

色 다른 여섯 작품에 푹~ 빠져보자

▲의자는 잘못 없다 (24~25일) 가구점에 놓여 있는 '의자' 하나를 놓고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벌이는 해프닝을 담은 작품으로 광주에서는 드물게 앙코르 공연까지 진행하며 관객들에게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의자' 하나를 놓고 벌이는 해프닝을 담은 작품 '의자는 잘못 없다'.

'의자...' 뒷부분에 깜짝 반전 재미 전편 관람권 2인 10만원 등 혜택

특히 깜짝 반전이 이뤄지는 작품 뒷부분은 연극 보는 재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김상호·노희철·이기인 등이 출연한다. 광주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 거미 (27~28일) 돌연변이 사이코 패스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김효정씨가 극작과 연출을 맡았으며 정연승, 문승우씨가 출연한다.

▲ 고양이 춤 (10월 1~2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한 남자에게 햇살처럼 다가온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연가 (10월 4~5일) '꿈결 같은 세상'으로 유명한 가수 송시현이 음악을 맡은 로맨틱 뮤지컬이다.

가 유일한 가족인 그의 집으로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인천 극단 '놀이와 축제'.

▲ 무지마 욕남매 (10월 11~12일) 부모 없이 남겨진 욕남매가 전하는 웃음과 눈물의 드라마다.

차려사가 꿈인 기식이, 먹보 두식이, 막내 말식까지 6명의 아이들로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얼마 역할을 든든히 하는 역순이 덕에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난다. 부산 극단 '에저도'.

부천 극단 '뽀뽀'. ▲ 영종도 38km 남았다 (10월 8~9일) 광주 출신으로 '의자는 잘못 없다'의 작가이기도 한 선옥현씨가 연출과 희곡을 맡았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인 남자 주인공은 술만 취하면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공황 가는 버스를 기다린다. 어느 때처럼 정류장에 앉아 있던 그는 목사, 장로, 형사, 탈주범을 차례로 만나며 인간 사이의 끊어지지 않는 먹이사슬을 확인한다. 서울 극단 '필통'.

▲ 무지마 욕남매 (10월 11~12일) 부모 없이 남겨진 욕남매가 전하는 웃음과 눈물의 드라마다.

차려사가 꿈인 기식이, 먹보 두식이, 막내 말식까지 6명의 아이들로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얼마 역할을 든든히 하는 역순이 덕에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난다. 부산 극단 '에저도'.

대학생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6편 전편 관람권(2인) 10만원이며 전화예약 20%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마련돼 있다. 문의 062-521-7555.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박화성 페스티벌' 문학혼 기린다

20일부터 학술대회·문화콘서트

목포 출신 여류 소설가인 소영 박화성(1904~1988·사진)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문학·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목포시 용해동 목포문학관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제2회 박화성 학술대회와 함께 박화성 문학의 현대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문화콘서트도 진행된다.



개막식에서 박화성의 아들이자 소설가로 활동중인 천승세씨는 격려사를 통해 자식으로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박화성의 면모를 소개한다.

이어 열리는 문화콘서트에서는 김명현 시인의 추모시 낭송과 목포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 극단 새결은 박화성의 작품 '호박'을 각색한 '엄니 그 돈 나 주세요'를 공연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6월 열린 제1회 스토리텔링 콘테스트에서 임상현 전이슬씨 등 11명에 대한 시상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강원대 이미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회 박화성 학술대회에서는 부산대 송명희 교수가 '박화성 소설연구-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를, 초당대 고창석 교수는 '박화성 인물의 여성적 공간', 목포자연사 박물관 김양희씨가 '1949년 목포형무소 집단탈출사건 연구'를 주제로 각각 논문발표를 한다.

또 일본 현립 니가타 여자 단기대 야마다 요시코 교수가 '한 지식인 여성작가의 탄생'에 대해 논문발표를 하며 대전대 정순진 교수, 신안문화원 최성환씨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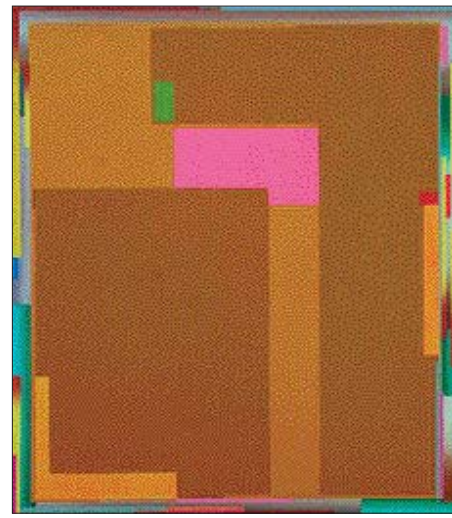


오늘의 비엔날레 작품 - 박진아 작 '문탠' 스냅 사진 보고 그린 회화 2점 연작

야간에 카메라를 셔터를 터뜨려 찍은 스냅 사진을 보고 그린 회화 2점을 모은 연작. 문탠(Moontan)은 선댄(Suntan)에서 따온 제목이며, 달빛 아래에서 소풍을 즐기는 모습이 화폭에 담

호수공원에 모여있는 4명의 젊은이는 물을 마시거나, 무언가를 쬐는 등 각자의 행동을 하고 있다. 못자리를 깔고 함께 밤을 즐기는 듯 하지만 이들의 동떨어진 모습과 행동을 통해 현대인의 고독과 익명성 등을 표현했다.

박진아는 흔히 사물을 직접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서 벗어나 사진을 통해 사물을 왜곡한 뒤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잇따라 네 컷씩 찍히는 로모(Lomo)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다시 회화로 표현하는 이른바 '로모그래피' 연작이 대표적이다. 역량 있는 신인을 발굴해 전시를 지원하는 '금호미술관 영아티스트'에 선정돼 지난 2005년 금호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Light 2008-11A'

우제길 'Light 647-2' 개인전

10월13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다양한 빛의 변화를 캔버스에 담고 있는 중진 서양화가 우제길씨가 10월13일까지 우제길 미술관에서 'Light 647-2'를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에서 우제길은 40여년 동안 포착해온 빛을 표현한 추상화와 빛의 다양한 양상을 스테인리스로 형상화한 조각품도 함께 전시한다. 한국 전통의 격자무

늑이 조화를 이룬 150~300호 크기의 대작을 대거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업실을 공개하는 일종의 오픈스튜디오 전이다. 전시 주제인 'Light-647-2'는 작업의 화두인 'Light'와 광주시 동구 운림동 647-2번지에 위치한 우제길 미술관의 주소를 뜻한다. 문의 062-224-66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건반을 사랑하는... '프랑스 음악' 연주

22~25일 드래머트홀

지역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30여명이 지난 2001년 만든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이태은 전남대 교수·사진)은 1년에 두차례씩 다양한 주제로 연주회를 열어왔다. 회원

들은 베토벤, 리스트, 슈베르트, 모차르트 등 유명 작곡가의 음악을 4~5일씩 집중 연주, 클래식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오는 22~25일까지 광주드래머트홀에서 열리는 15번째 정기연주회의 주제는 '프랑스 음악'이다. 드뷔시,



포레, 생상, 프랑크, 라벨, 사티, 비제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피아노 음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다.

연주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2일=조혜원 이인미 조현영 김은영 임리라 김은희 합지연 박제희 ▲23일=조미자 문현옥 이태은 박규연 범영숙

박수미 유경리 ▲24일=정수정 장해라 김태희 김주희 장지민 문노을 명지민 하윤형 이사란 김보미 서소라 소문희 이지은 이현주 ▲25일=황재선 이주희 박숙연 허정희 조혜윤 김영화.

오는 10월 11일에는 서울 이원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가지며 2009년에는 '무곡(舞曲)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문의 062-234-3723.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관전역사거리 ♥에이1544-0600
1관 20세기 소년 (124) 최고등급
2관 신기전 (154)
3관 맘마미아(124)/20세기소년(124)
4관 울학교이티(154)/스타워즈(전제)
5관 영화는 영화다 (184)
6관 지구(대행) (전제) /방콕 데인저러스 (154)
7관 꽃보다 남자 (124)
8관 신기전(154)/영화는 영화다(184)
9관 맘마미아 (124)
\*이프류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매 권별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유류 부과

www.entercinema.co.kr
엔터 시네마
총정리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신기전 (154)
2관 방콕 데인저러스 (154)
3관 울학교 이티 (154)
4관 20세기 소년 (124)
5관 영화는 영화다 (184)
6관 지구(대행)/스타워즈(전제)
7관 맘마미아 (124)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비즈니스석 사무니(오전5시~오후11시)
www.entercinema.co.kr
\*널고 편안 북나북의 주차장 300대 \*금로 실야상영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비즈니스석 사무니(오전5시~오후11시)

www.joybox.com/1588-7941
컬롬버스 시네마
상무점(상무병원과 아파트 사이) 해남점(무역화관 뒷편)
1관 울학교 이티 (154)
2관 20세기 소년 (124)
3관 지구(대행)(전제)/영화는 영화다(184)
4관 영화는 영화다 (184)
5관 방콕 데인저러스 (154)
6관 신기전 (154)
7관 스타워즈 (전제) / 맘마미아 (124)
8관 꽃보다 남자 (124)
9관 맘마미아 (124)
10관 신기전 (154)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비즈니스석 사무니(오전5시~오후11시)

www.chinua.co.kr/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울학교 이티 (154)
2관 맘마미아 (124)
3관 신기전(154)/영화는 영화다(184)
4관 스타워즈(전제)/방콕데인저러스(154)
5관 꽃보다 남자 (124)
6관 신기전 (154)
7관 영화는 영화다 (184)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비즈니스석 사무니(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www.hamcinema.co.kr/1588-912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박스 ☎ 267-7777
1관 지구 (전제)/스타워즈 (전제)
2관 고사 (154)/영화는 영화다 (184)
3관 다크나이트 (154)/20세기 소년 (124)
4관 꽃보다 남자 (124)
5관 영화는 영화다 (184)
6관 울학교 이티 (154)
7관 방콕 데인저러스 (154)
8관 신기전 (154)
9관 맘마미아 (124)
10관 신기전 (154)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385 매일 실야
\*이동 통신사 & OK 캐시백 카드 할인 혜택
\*하미 수영장 288-5757 \*하미 불행정 282-0825
\*하미 골프장 251-5060 \*하미 당구장

www.zimucinema.com/www.jekinema.co.kr
제 일 시네마
총정리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신기전 (154)
2관 울학교이티 (154)
3관 맘마미아 (124)
4관 영화는 영화다 (184)
5관 꽃보다 남자 (124)
6관 20세기 소년 (124)/지구 (전제)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